



福祉農村진설에 일익 담당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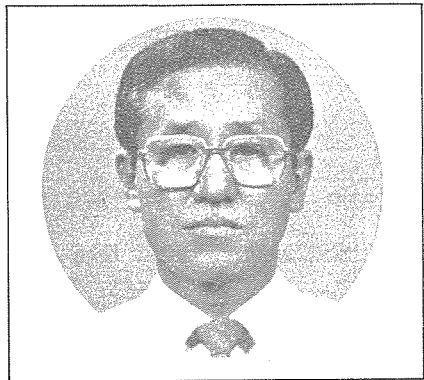
産·學·研협동체제 구축위한 발판마련

『지난 6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農業機械化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시책과 농기계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및 기술개발을 토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52%에 달하는 기계화율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國家的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韓國農業機械學會 崔圭洪회장(전국대 농대교수)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된 이래 다량의 비료 농약등 농업기자재가 생산 공급되어 70년대에는 선진농업국 못지않은 토지생산성을 제고시켰으며 80년대부터는 농기계공급에 박차를 가해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구조 자체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농업이 타산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산업간의 불균형발전이 젊은 영농후계자를 농촌에 정착시키지 못하는 요인등으로 작용함으로 해서 농업기계화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人力과 畜力을 이용한 농기구 중심에서 70년대부터 공업화로 인한 농촌인력의 지속적인 유출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촌노동력부족에 대처하고 노동력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농민들의 욕구증대, 경지기반의 확충등 여러가지 복합적요인들이 농업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게 함으로써 선진농업국에 비해 늦은 출발에도



◇ 崔圭洪회장

불구하고 상당히 진전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농업기계화가 우리나라 농업근대화역의 주역을 담당하였듯이 21세기를 향한 복지농촌진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과 이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겠습니다』崔회장은 우선 농어촌개발기금의 일부를 농업기계화촉진기금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지원시책이 있어야 겠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영농구조형태에 알맞은 값싸고 이용하기 편리한 신기종개발이 시급하므로 농기계산업이 기술축적을 통해 기종개발에 힘쓸수 있도록 기술개발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밖에도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계화 영농단을 통한 공동이용조직의

확대와 농기계수리전문기술자의 양성 및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이며 농기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검사제도의 개선과 농기계사용에 따른 안전문제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崔회장은 정부에서는 기계화영농단이 농기계공동이용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농기계구입자금의 지원율을 40%에서 89년부터는 50%로 늘리고 나머지 50%도 장기저리(年8%에서 5%로 인하)융자토록 지원시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힌다.

崔회장은 또 잘사는 농촌, 복지농촌이 되려면 농가경제의 제고를 위한 農外소득의 확대방안 모색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경지기반 확충을 통한 영농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책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농업기계 전담기구 및 전문연구소의 설치는 물론 농기계검사관의 직능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다.

『학계에서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계에서는 기초연구와 함께 신기종개발연구에 힘쓰며 산업체에서는 완제품개발연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연구소의 신기종개발연구가 산업계의 완제품개발에 바로 연결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한 농기계가 생산되었을때 우리나라 농업생산성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崔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농기계에 관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崔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농진청내에 농업기계화연구소 한곳밖에 연구기관이 없어 당면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농기계전문연구소의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함께 해마다 4백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농기계전공졸업생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현재 국내수요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수출쪽에 눈을 돌려 수출전략산업화한다면 이들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崔회장은 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는 이들 전문인력의 수용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수요의 한계에 따른 시장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서둘러야 할 임자라고 설명한다.

崔회장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종개발과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과감한 연구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다른 어느분야보다도 우리 농기계에 관한 연구비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편이지요. 따라서 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학계에 지원하여 연구토록 하므로써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연구체제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崔회장은 이를 위해서 학회가 産·學협동의 구심체가 되어 우리나라 농업기계학발전에 전인차역할을 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학회의 역할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학술 및 정보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산·학·연이 삼위일체가 되어 농기계산업의 발전은 물론 농업기계화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崔회장은 농업기계화시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품질개선을 통한 고급화로 수출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복지농촌 건설이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仁仁 記>